

DOCUMENT RESUME

ED 453 979

PS 029 589

AUTHOR Freedman, Judy S.
TITLE Easing the Teasing: How Parents Can Help Their Children.
ERIC Digest. [Korean Version].
INSTITUTION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hampaign, IL.
SPONS AGENCY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ED),
Washington, DC.
REPORT NO EDO-PS-99-16
PUB DATE 1999-12-00
NOTE 4p.; For English version, see ED 431 555.
CONTRACT ED-99-CO-0020
AVAILABLE FROM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ren'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Illinois, 51 Gerty Dr., Champaign, IL 61820-7469; Tel:
800-583-4135 (Toll Free); Tel: 217-333-1386; Fax:
217-333-3767; Web site: <http://ericeece.org>; e-mail:
ericeece@uiuc.edu.
PUB TYPE Guides - Non-Classroom (055) -- ERIC Publications (071)
LANGUAGE Korean
EDRS PRICE MF01/PC01 Plus Postage.
DESCRIPTORS Conflict Resolution; *Cop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Emotional Respons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arent
Role; *Peer Relationship; *Prevention; Social Development;
*Student Behavior; Young Children
IDENTIFIERS ERIC Digests; Harassment; *Teasing

ABSTRACT

Children who are teased on a school bus, in class, or during recess often do not want to return to school. Unfortunately, teasing can occur anywhere,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despite the best efforts of parent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to create a more cooperative atmosphere. This Korean-language digest discusses different types of teasing (e.g., playful versus hurtful), why children tease other children (e.g., attention, imitation, or peer acceptance), and strategies for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help them deal with teasing (e.g., self-talk, visualization, or reframing). The digest points out that teasing can become harassment if it is repeated or prolonged, threatens or results in violence, or involves inappropriate touching or physical contact. In such cases, it may be necessary to involve administrators and parents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LPP)

Easing the Teasing: How Parents Can Help Their Children

ERIC Digest
[Korean Version]
by
Judy S. Freedman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This document has been reproduced as
received from the person or organization
originating it.

Minor changes have been made to
improve reproduction quality.

• Points of view or opinions stated in this
document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official OERI position or policy.

PS 029 589

BEST COPY AVAILABLE



놀림 받는 아이의 괴로움을 덜어주자: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

Judy S. Freedman

통학 버스 안에서나 수업 혹은 휴식 시간에 놀림을 받는 어린이는 종종 학교 가는 것을 꺼려 한다. 불행하게도 놀리는 행위는 어디서나 발생한다. 또한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부모, 교사, 및 학교 행정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예방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oss, 1996). 대부분의 어린이는 좋지 않은 별명으로 불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놀림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화를 내게 된다. 부모는 이러한 고통스런 상황을 항상 예방할 수는 없으나, 아이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대처 방안을 어렸을 때 배운 아이는 청소년기나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에 발생하는 심한 사회적 위협이나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게 마련이다. 본 기사는 놀림의 여러 가지 유형, 놀림을 주고 받는 이유, 그리고 부모와 아이를 위한 대처방안을 논한다.

놀림의 유형

놀림이라고 해서 다 해로운 것은 아니다. 장난스러운 놀림은 재미있고 건설적이다. 놀림을 주거나 받는 것은 아이에게 청소년이나 어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사회적응 기술을 발달시켜준다 (Ross, 1996).

장난스럽거나 좋은 유머가 담긴 놀림은 놀림을 받는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종류이다. 반면에 피해를 주는 놀림에는 조롱, 별명 부르기, 깎아 내리기, 언짢은 언행 등이 포함된다. 장난스러운 놀림과는 달리 피해를 주는 놀림은 당사자에게 슬픔, 상처 혹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문이나 폭력을 포함한 더욱 심한 괴롭힘은 부모, 보모, 교사 혹은 학교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놀림의 이유

아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놀린다.

- **관심.** 놀림은 부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무관심 보다 부정적인 관심을 더 선호한다.
- **모방.** 어떤 어린이는 집안에서 배운 행동을 학교나 동네에서 연기하거나 모방한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가정에서 형제로부터 놀림을 받았거나 공격적이고 거친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이다.
- **우월감이나 권력.** 놀리는 아이는 남을 깎아 내릴 때 우월감을 느낀다. 혹은 자기의 놀림이 남에게 화를 안겨줄 때에도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Olweus, 1993).
- **동료의 인정.** 놀리는 일이 '멋지다'는 이유로 남을 놀리는 아이를 흔히 접하게 된다. 아이들은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을 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집단의 일원이 된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다.
- **차이점의 오해.** 어떤 놀림의 상당부분은 차이점의 이해부족에서 기인된다. 대부분의 아이는 문화적, 민족적인 차이에 익숙치 못하거나 이해

하지 못한다. 때로는 육체나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나 특징을 배우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만 일삼는 아이도 있다.

- **매스컴의 영향.** 매스컴의 강력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놀림의 이유를 논할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 속에 등장하는 놀림, 깎아 내리기, 비난, 존중 없는 태도 등에 자주 노출되어 있다.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부모를 위한 해결책

아이가 놀림 받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리에 앉아서 아이의 말을 주위 깊게, 판단을 배제하고 들어야 한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놀렸는지 이야기 하도록 한다.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부모가 어릴 적 놀림 받았던 경험을 연관시켜 얘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의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과민반응은 금물. 부모의 과민 반응은 아이의 과민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 "너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알아듣게 한다.
- 기분 좋게 해주는 아이들과 지내라고 당부한다
- 부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당신도 "피해자"의 행동을 취하거나 자녀를 부적절하게 놀리지 않는가?
- 아래에 제시된 방법들을 가르치고 복습하고 연습하라.

아이에게 가르칠 만한 대처방법

놀림을 예방하기란 불가능하며, 아이도 남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는 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하여 부모는 아이에게 당혹감을 해소 시키고 힘을 줄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가르쳐 본다. 아이가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했을 때, 아이의 대처기술은 강화된다.

- **흔잣말.** 아이가 놀림 받을 때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권한다 (Bloch, 1993). 아이는 스스로 "이런 놀림이 비록 싫지만, 난 견뎌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이는 "놀리는 내용이 사실인가" 질문할 수 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또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한가? 놀리는 아이의 것인가, 내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의 장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도 부정적인 말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무시.**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림으로써 더 많은 놀림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놀리는 아이를 무시하는 것도 종종 효과가 있다. 놀리는 아이를 쳐다보거나 반응해서도 안 된다. 놀리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처럼 행동하거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 한다. 가능하면 놀리는 아이를 피하도록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무시하기” 놀이를 하는 동안 아이의 훌륭한 “연기”를 칭찬할 수 있다. 단, 오랫동안 놀리는 경우, 무시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 **나 메시지.** “나 메시지”는 어린이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호한 기술이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며, 그런 기분이 들게 된 이유를 말하고, 상대방이 행동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는지 말한다. 이를테면 “너가 내 안경 가지고 놀릴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만 좀 했으면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교실처럼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 휴식시간이나 통학버스처럼 통제가 배제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놀리는 아이는 화를 내는 아이에게 더욱 심하게 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아이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쉬운 기술이다. 아이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분명하고 정중하게 말하도록 배워야 한다.

• **시각화.** 많은 아이들은 자신에게 던져진 말이 몸에서 반사되어 튀겨져 나가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들리는 말을 인정하지 않도록 작용한다. 이런 연상은 Nerf 공이 사람에게서 튀겨져 나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형성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시각화는 아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둘러싸여 있다고 가장하게 하여 놀림이나 깃웃은 말이 반사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아이들이 깎아 내리는 말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해 준다.

• **말 바꾸기.** 말 바꾸기는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놀림을 칭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아이가 안경 쓴 아이에게 “안경잡이, 안경잡이, 넌 안경잡이야”라고 놀릴 때, 놀림을 받는 아이는 “내 안경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라고 정중하게 반응할 수 있다. 놀리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놀림 받은 아이가 화를 내지 않을 때 더욱 당황한다. 또 다르게는 “그거 굉장한 놀림인걸?”이라는 말로 반응할 수 있다.

• **사실을 인정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놀림이나 조롱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Cohen-Posey, 1995). 놀리는 아이는 “너 주근깨 되게 많다”고 말한다. 이때 놀림 당한 아이는 “그래, 나 주근깨 많아”라고 대답할 수 있다. 놀리는 아이가 “넌 애기 같은 울보야”라고 말할 때 “나 정말 쉽게 울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할 경우 주근깨나 눈물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 **“그래서?”.** “그래서?”라고 대답함으로써 놀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이들은 이런 대답이 쉬우면서도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방법은 Bill Cosby 가 쓴 “가장 심한 험담”에 유머러스하게 논하고 있다.

• **칭찬으로 놀림에 대응한다.** 놀림을 당할 때 오히려 칭찬으로 반응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아이가 달리기를 못해서 놀림을 받을 경우, “너 정말 잘 뛰더라” 하고 대답할 수 있다.

• **유머를 사용한다.** 유머를 사용해서 깎아 내리는 말이나 비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웃음은 기분 나쁜 상황을 재미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 **도움을 요청한다.** 때때로 끈질기게 놀리는 아이의 경우 어른의 도움이 나 중재가 필요하다.

놀림이 폭력으로 바뀔 경우

대부분의 놀림은 아이들 당사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때로는 부모, 보모, 교사, 사회 사업가 및 상담원의 도움도 효과가 있다. 놀림이 반복, 연장, 위협 혹은 폭력으로 확대되거나, 부적절한 접촉이나

육체적 마찰까지 이르게 되면 학대가 될 수 있다. 어른들은 학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학대가 의심되거나 예상되면 필요한 대로 중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학대예방차원에서 학교 행정당국과 부모가 함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아이에게 놀림 받는 일은 예방될 수 없다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놀림 받는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본 기사는 Freedman, Judy S. (1999, Spring). *Easing the teasing: How parents can help their kids cope* [놀림 받는 아이의 괴로움을 덜어주자: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 *Early childhood*, pp. 1, 4. 를 발췌한 것이다. Ms. Freedman 은 Buffalo Grove, Illinois 에 위치한 Prairie 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허가 받은 의학관련 사회 사업가이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는 info@easingtheteasing.com 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Berry, Joy Wilt. (1985). *Let's talk about teasing*. Chicago: Children's Press.

Biren, Richard L. (1997). *Nah, nah, nah!: A comprehensive teasing-education manual for grades 3-5*. Warminster, PA: Marco Products.

Bloch, Douglas. (1993). *Positive self-talk for children: Teaching self-esteem through affirmations*. New York: Bantam Books.

Brigman, Greg, & Earley, Barbara. (1991). *Group counseling for school counselors: A practical guide*. Portland, ME: J. Weston Walch.

Cohen-Posey, Kate. (1995). *How to handle bullies, teasers, and other meanies*. Highland City, FL: Rainbow Books.

Cosby, Bill. (1997). *The meanest thing to say*. New York: Scholastic.

Cowan, David; Schilling, Dianne; & Schwallie-Giddis, Pat. (1993). *Counselor in the classroom: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an effective classroom guidance program*. Spring Valley, CA: Innerchoice.

Freedman, J. S. (Ed.). (1999). *Easing the teasing* [Online]. Available: <http://www.easingtheteasing.com> [1999, July 10].

Kaufman, Gershen, & Raphael, Lev. (1990). *Stick up for yourself: Every kid's guide to personal power and positive self-esteem*. Minneapolis, MN: Free Spirit Publishing.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ED 384 437.

Ross, Dorothea M. (1996). *Childhood bullying and teasing: What school personnel, other professionals, and parents can do*.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ED 402 527.

Webster-Doyle, Terrence. (1991). *Why is everybody always picking on me? A guide to handling bullies*. Middlebury, VT: Atrium Publications. ED 410 007.

참고문헌 중 ED 표시는 ERIC 문헌이며, EJ는 ERIC 정기 간행물, PS 번호는 ERIC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헌은 전 세계에 1,000 개가 넘는 곳에서 접할 수 있는 ERIC 마이크로피스에서 찾을 수 있으며, EDRS: (800) 443-ERIC 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 기사는 원 잡지,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혹은 UnCover (800)787-7979 또는 ISI (800)523-1850 과 같은 기사 재발행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RIC 기사는 사회 공유 재산이며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미교육부, 교육연구 및 향상 사무국으로부터 연방 기금을 부분적으로 받아서 ED-99-CO-0020 계약번호 아래 시행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미교육부의 관점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기사 속에 언급된 상표, 상품, 혹은 조직 등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OERI)
National Library of Education (NL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NOTICE

Reproduction Basis



This document is covered by a signed "Reproduction Release (Blanket)" form (on file within the ERIC system), encompassing all or classes of documents from its source organization and, therefore, does not require a "Specific Document" Release form.



This document is Federally-funded, or carries its own permission to reproduce, or is otherwise in the public domain and, therefore, may be reproduced by ERIC without a signed Reproduction Release form (either "Specific Document" or "Blanket").

EFF-089 (3/2000)

PS 029 589